

서울에어쇼'96의 빅히트 인터넷 서비스

서울에어쇼'96기간중 홍보역할을 특특히 한 것이 바로 인터넷 서비스이다.

행사전부터 관심을 집중한 본 인터넷 서비스는 행사가 끝남에 따라 이제 거둬나기를 시작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항공우주산업정보를 망라하여 제공할 예정으로 있는 서울에어쇼 인터넷 서비스는 이제 새롭게 변신하여 서울에어쇼 뿐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 항공우주산업체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할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글은 한국 최초로 선보인 인터넷 가상현실기법을 소개하고 향후 계획에 대해 알아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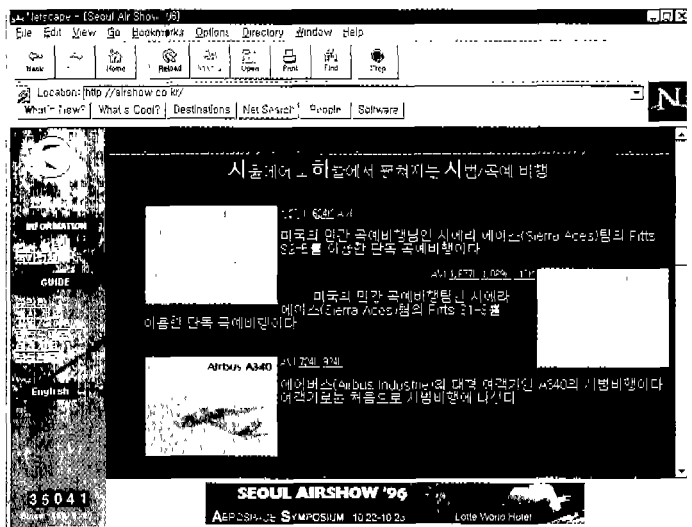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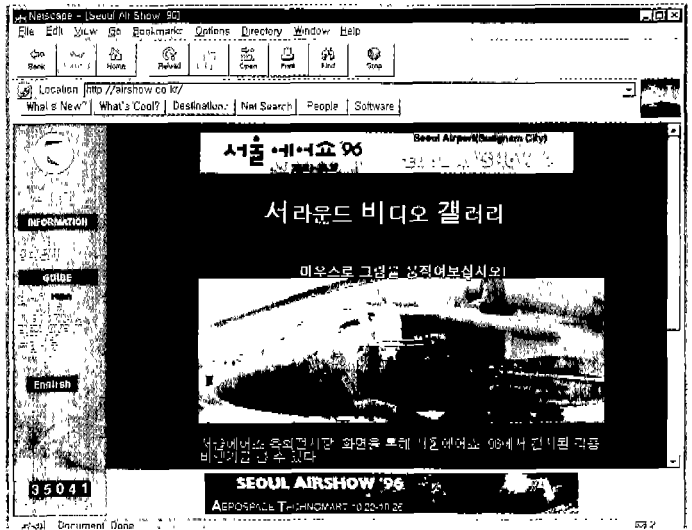
서울에어쇼가 지난 10월 27일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서울에어쇼는 보도면에서 방송, 신문 등 일반적인 매체뿐 아니라 인터넷 서비스, PC통신을 이용해 많은 홍보활동을 벌였다.

이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이 바로 인터넷 서비스로 이 작업은 '한글과 컴퓨터'에서 담당하였다.

서울에어쇼 홈페이지는 다른 사이트들과는 차별적으로 최첨단의 장비를 도입하여 서울에어쇼'96 행사장을 가상으로 관람할 수 있는 '갤러리' 메뉴를 두고 있다.

이 갤러리 메뉴에는 서라운드 비디오 갤러리와 이의 세부항목으로 나뉜다.

서라운드 비디오 갤러리는 Round Shot이라는 특수카메라로 촬영을 해야 한다. 이 라운드 샷 카메라의 외형을 얼핏 보면 카메라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이상하게 생긴 장비이다. 이 카메라에는 일반적인 35mm 컬러 필름이 들어간다. 그러나 필름을 스캔하여 편집을 해야하기 때문에 컬러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한다. 컬러 슬라이드 필름을 사용하면서 찍히는 대상물체의 색상이 그대로 살아나게 된다.



이 라운드 샷 카메라는 사용자의 취향에 따라 90도, 180도, 270도, 360도, 450도, 무한 영역으로 나뉘기 때문에 원하는 곳만 따로 촬영할 수도 있다. 대부분 360도로 촬영하지 않고 450도 촬영으로 이루어진다. 췌다보면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방법으로 한장의 필름에 주변의 상황이 모두 포착되면 이 필름을 스캔하여 파일로 저장한 후 Black Diamond사의 서라운드 비디오용 툴킷을 이용하여 음향 파일을 생성하고 다시 웹 툴킷을 이용하여

웹상에서 보고 들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비디오 갤러리에는 '한글과컴퓨터' 취재팀이 직접 서울에어쇼에 상주하며 곡예비행과 시범비행을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통해 촬영, 비디오 파일을 편집하여 올리고 있다.

고가인 디지털 비디오 카메라를 선택한 이유는 보다 생생한 화면과 질 좋은 영상을 제공하기 위한 방법이다. 현재는 단순한 시범비행과 곡예비행이 올라가 있지

만 메뉴가 새로 개편되면 보다 볼만한 많은 자료들을 제공할 예정이다. 말하자면 지금 볼 수 있는 것을 그야말로 '맛보기'인 것이다.

서울에어쇼 '96의 홈페이지는 지난 9월 24일 정식으로 오픈한 이후 짧은 시간내에 약 3만5천회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의 주된 이유는 바로 꾸준한 웹사이트 관리와 신규자료의 업데이트수가 많은 점 그리고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 첨단의 웹사이트 기법을 소개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서울에어쇼 '96 홈페이지는 방대한 자료(2,000개 이상의 문서파일과 1,000장 이상의 그림파일)이 포함되어 있다. 이 자료는 현재도 꾸준히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서울에어쇼 행사는 끝났지만 2년마다 서울에어쇼가 개최될 예정이므로 홈페이지는 계속하여 남아 있으면서 국내외 항공우주산업체 웹사이트와의 연결을 비롯하여 월간 '항공우주'가 제공하는 항공우주산업 관련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에어쇼 '96 홈페이지는 이렇게 행사기간 중에는 행사소개를 비롯한 정보제공을, 나머지 기간에는 항공우주산업관련 종합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